



윌름스 캔서 파운데이션

(Wilms Cancer Foundation, WCF)

미국 세법상 501(c)(3) 비영리 면세 단체(EIN: 98-3478827)
미국 워싱턴 D.C. 20002, 712 H Street NE, Suite 2147
info@WilmsFoundation.org | +1 (778) 514 5000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윌름스 캔서 파운데이션(Wilms Cancer Foundation, WCF)과의 협력 하에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CureAll"은 WHO 소아암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for Childhood Cancer, GICC)의 일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특정 기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지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www.WilmsFoundation.org

윌름스 캔서 파운데이션
(Wilms Cancer Foundation, WCF)
소아 신장암을 이겨내다

우리는 누구인가

윌름스 캔서 파운데이션(WCF)은 아홉 살 소년 윌리엄 호지킨슨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설립된 자선 단체로, 윌름스 종양으로 영향을 받는 아동, 가족, 그리고 의료기관의 필요를 지원하고 대변합니다.



우리의 목표

인식 제고, 교육, 옹호,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아우르는 국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질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 의료진이 겪는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윌름스 종양이란?

신모세포종(nephroblastoma, 윌름스 종양)은 소아 신장암 중 가장 흔한 유형이며, 전체 소아암 중 네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이 질환은 때때로 요로 이상이나 기타 선천적 결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윌름스 종양은 주로 어린이(대개 5세 이하)에게 발생하지만, 더 나이가 많은 아동, 청소년, 그리고 드물게는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양은 처음에는 신장에서 발생하지만 점차 신장보다 훨씬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며, 진행된 경우 폐, 간, 뼈 등 신체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조기에 발견될 경우 높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수년간 진단되지 못해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과 같은 광범위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료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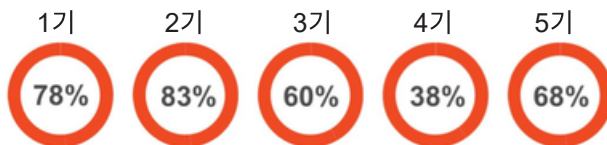
부모에게 가장 큰 두려움

학교에 가는 길에 단순한 ‘복통’을 호소하던 윌리엄은 불과 7세의 나이에 4~5기 윌름스 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활발하던 아이였지만 검사 결과 신장에 거대한 종양이 발견되었고, 폐에서도 9개의 종양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며 여러 차례 수술과 장기간의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견뎌야 했습니다. 힘든 치료 끝에 회복되는 듯했지만, 새로운 종양이 발생하며 여러 차례 재발을 겪었고 결국 고위험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기에 발견되었다면 이러한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상실감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부담을 포함하여)

윌름스 종양 병기별 5년 생존율 비율(미만성 역형성)



왜 지원이 필요한가

윌리엄과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겪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윌름스 종양은 조기에 발견되면 가장 치료 가능성이 높은 소아암 중 하나이지만, 늦게 진단될수록 치료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변화

WCF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과 가족, 의료진이 겪는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으며, 개인과 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